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곽수경**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목포의 트로트 흥성원인 |
| II. 목포의 개항과 개항장 목포의 특징 | V. 나가는 말 |
| III. 일본문화와 대중매체의 유입 네트워크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요약〉

목포는 한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서해를 끼고 중국 남부 해안도시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산 사이에 있어 일본과도 연결된다. 또한 다도해와 나주평야의 풍부한 농수산물에 접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의 주목을 받았고,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1897년 조선에서 네 번째로 개항했다. 이는 고종의 칙령에 의해 개항한 첫 번째 자개항(自開港)이기도 하다. 목포는 개항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중문화도 유입되고 발전했다. 본고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목포의 개항과 개항장 목포의 특징을 살피고, 대표적인 근대 대중가요 양식인 트로트의 유입과 발전 요인을 분석했다.

조선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목포에 각국공동거류지를 조성했으나 다른 나라의 관심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본인전관거류지만 존재하는 형국이 되었고 거류지와 조선인마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생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목포에 앞서 개항했던 부산이나 인천의 조선인이나 일본인들이 목포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목포는 주로 인근지역의 농수산물 등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항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산업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유흥문화가 발달했다. 경제적 번영은 유성기(留聲機)와 같은 대중매체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고, 특히 1930~1940년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나 <목포는 항구다>가 전국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트로트 탄생에 영향을 끼쳤던 일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본 엔카와 일본 문화, 유성기와 음반 등 대중매체는 인적, 물적 이동경로를 따라 일차적으로 부산을 통해 목포로 전파되었으며, 목포가 조약에 의해 개방한 이전 개항장들과 구별되는 자개항으로서의 특징보다는 오히려 산업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개항장, 목포, 대중문화, 대중가요, 트로트

I. 들어가는 말

오랫동안 쇠국을 고집하던 조선은 일본의 끊임없는 계략 속에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부산(1876.8), 원산(1880.5), 인천(1883.1)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어 목포와 진남포(1897.10), 군산, 성진, 마산(1899.5), 용암포(1904.3), 청진(1908.1) 등을 차례로 개방하게 되었다.¹⁾ 한일수호조규는 부산과 2개의 항구를 개방하는 것에 이어 다음은 전라도를 개방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것에 근거하여 목포가 네 번째 개항장이 되었던 것이다. 목포는 한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서해로는 중국, 남해로는 일본과 연결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도 서남해 바닷길의 요충지로 기능했다. 또한 다도해와 나주평야의 풍부한 농수산물들이 집결되는 곳이라는 이점이 있어 개항 이전부터 일본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목포는 조선의 네 번째 개항장이면서 이전 개항장들과 달리 불평등조약에 의한 강제 개항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 첫 번째 자개항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²⁾ 그들은 이전 개항장이 국가 간의 교역 등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유리한 조항들로 체결된 것에 반해 목포는 개항이 조선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고종의 칙령으로 개항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목포 개항을 조선 주도에 의한 것으로, 그리고 개

1) 鄭昭然, 『개항장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12면 참고

2) 목포시, 『목포시사(인문편)』, 목포시, 1987; 최성환,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양홍숙, 「‘신개항장新開港場’ 목포의 공간과 조선인 네트워크」(조정민 엮음, 『동아시아 개항장도시의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3 등이 있다.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항장의 변화, 목포 도시의 발전이 조선의 주도력에 의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지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실지로 앞선 조약개항장들과 구별되는 목포 개항장의 자주성과 조선이 의도했던 개항의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최성환의 주장처럼 일본인들이 기술한 목포사(史) 관련 기록들이 모두 개항 이전 시기 목포가 가지고 있던 해양적 성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황무지였던 목포를 개척하여 발전시켰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³⁾ 인정하더라도 목포가 개항과 더불어 근대도시로 발전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목포가 개항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앞선 개항장에서의 경험을 가진 상인들과 일본정부의 이주장려정책에 힘입은 일본인들이 목포로 몰려왔고 개항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고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한편 도시도 확장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중문화 또한 유입되고 발전해나갔는데, 대중문화는 소비 주체로서의 대중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토대와 대중이 생활하는 도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포의 근대도시로의 변화는 대중문화의 유입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근대시기를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하나로 트로트가요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대문화는 당시 시대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고, 그 후로도 상당기간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나갔다. 트로트가요의 형성에 대해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과 일본 엔카(演歌)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 그리고 우리의 전통음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 등 대중가요 연구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정서와 방식에 맞게 발전한 우리 가요라고 하더라도 일본 가요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⁴⁾

3) 최성환, 앞의 글, 11면

4) 일제강점기 트로트의 생산과 수용을 일제의 문화적 식민이 빚어낸 음악적 결과물로 인식하지만, 한국학학자 마이클 로빈슨 Michael Robinson에 의하면 일본은 개국 초창기부터 한국의 문화적 동화 및 통제를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인에게 문화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은 일제의 의도와는 별개로, 오히려 일제의 의도를 약화시키는 한국인 고유의 근대적 정체성을 다지게 되는 문화적 공간을 구축했다는 관점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목포의 개항과 개항장 목포의 특징을 살핌으로써 자개항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본문화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의 목포 유입 네트워크와 트로트가요의 흥성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것과 개항장 목포의 도시 성격과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 동북아해역에서의 대중문화의 유입과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목포의 개항과 개항장 목포의 특징

1876년 체결한 한일수호조규 제5조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에서 2곳의 항구를 20개월 안으로 개항한다는 조항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하였다.⁵⁾ 하지만 이후로는 개항장은 외국과 별도의 조약 체결 없이 조선이 지정했는데, 이로써 목포는 우리나라 네 번째 개항장이자 고종의 칙령에 의해 개항한 첫 번째 칙령개항장, 즉 자개항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약개항장과 칙령개항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일수호조규와 그 이후 체결한 다른 조약들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핵심은 일본의 치외법권과 조선의 관세 자주권의 인정 여부에 있다.⁶⁾ 즉 한일수호조규의 경우 조선이 국제정세에 무지했던 상황에서 일본과 일방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본의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조선의 관세 자주권은 부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정부는 개항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관세수입을 통해 국가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결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개항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자개항이라고 자부하는 목포 개항이 사실은 “중국의 예치럼 열강에 맞서기 위한 저항으로서의 자주 개항이 아니라 외국 열강의 돈을 벌리기 위한 개항”⁷⁾이라는 기존의 평가에서 더 나아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을 받아 형성되었지만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발전한 우리의 가요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손민정, 『트로트의 정치학』, 음악세계, 2009, 27~31면 참고)

5) 현광호, 『세계화시대의 한국근대사』, 선인, 2010, 58면 참고

6) 조경달·최덕수, 『근대조선과 일본』, 열린책들, 2015, 69면 참고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그 이유는 비록 개항 직전인 1897년 9월에 무안감리서를 설치하여 목포 개항장의 외교통상사무와 행정을 담당하게 했지만 1905년 이후 폐지되었고 목포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탈항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목포를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눈독을 들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들이 남긴 자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가령 『동경경제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개항 직전에 소개된 목포는 영산강의 수운, 호남평야와 관련성, 조밀한 인구, 부산과의 거리, 블라디보스톡과 나가사키 사이의 지정학적 관련성으로 경상도를 제외하면 전국 제일의 항구,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기대하는 지역이었다”⁷⁾라고 하거나 『목포부사』에서 목포는 “동경 126도 23분, 북위 34도 47분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모서리 다도해에 면한 곳에 있다. 일본 東京을 중심으로 반경 3백 리의 권 내에 있고, 5백 리를 그어서 살펴보면 그 서북 반원을 채우는 대륙 일본의 중앙근거지는 바로 목포임을 알 수 있고, 臺北, 上海, 南京, 靑島, 濟南, 北京, 天津, 營口, 奉天, 長春, 블라디보스톡 등 모두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백 리의 안에 있다. 더구나 남으로는 바다로 바로 남양을 바라보고, 바다와 육지에서 활약할 곳이 한이 없고, 더 한층 노력하여 상권을 확대한다면, 목포위 번영은 놀랄만할 것으로 전도가 매우 유망하다”⁸⁾라고 하여 목포가 조선 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타이완, 일본, 러시아 까지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임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은 근대산업으로 면방직산업에 열중하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지와 생산품 판매시장, 그리고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쌀 공급지가 필요했다. 목포는 영산강 하류와 다도해의 길목에 있고 나주평야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부산과 인천 중간에 위치하여 기선의 중간기착지로서 조선 진출에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개항을 시켜야 했다. 이는 당시 목포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주요 수출품은 쌀, 면, 우피(牛皮), 해초, 해물(海物) 등으로 당시 목포 인근 지역은 쌀과 면화의 주산지였으며 다도해에서는 어류와 해초 등이 산출되어 미곡, 면화와 더불어 이 지방의 4대 산물을 이루었고 목포는 그 중심 집산지

7) 양홍숙, 위의 글, 18면

8) 양홍숙, 위의 글, 25면

9) 木浦文化院, 『完譯木浦府史』, 목포문화원, 2011, 675면

였다. 1898년 일본으로의 수출품 품목별 구성을 보면 쌀이 70.3%, 목면이 21.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⁰⁾

특히 쌀 분야만 보더라도 일본은 열강 중에서 유일하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였던 데다가 근대공업에 열중하면서 쌀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와 군산을 통해 쌀을 실어가기에 혈안이 되었던 반면, 다른 열강들은 쌀에 별 관심이 없었으므로 목포와 군산을 방치하여 목포는 일본인의 독무대가 되었다.¹¹⁾ 1897년부터 1909년까지 목포와 군산의 쌀 유통 상황을 보면 연평균으로 목포항의 경우에는 전체 이출량의 63.4%가, 그리고 군산항의 경우에는 49.1%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따라서 목포와 군산의 개항 자체가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서구열강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최성환은 개항 이후 일본과 중국 등 근해 항로를 취항하는 기선회사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항회수도 대폭 증가했지만 “정기항로와 사람들의 왕래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과 중국 일부를 벗어나지 못했다. 쌀 이출을 목적으로 개항된 항구에 대한 구미인의 관심도가 낮았고, 러시아의 경우 처음에는 목포에 넓은 영사관용 토지를 확보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러일전쟁 패배 등의 이유로 목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는 목포가 쌀을 일본으로 이출시키기 위해 개항되었다는 태생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개항장의 한계점으로 보인다”¹³⁾고 했고, 『목포시사』 역시 목포항의 개발 역시 식민지화를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고 보고, 그것을 일본의 식민정책에 강요된 의타적 도시화라고 평가했다.¹⁴⁾

한편 양홍숙은 영산강과 호남평야를 가진 목포가 부산과 인천의 개항장과는 다

10) 裴鐘茂, 『木浦開港史 研究』, 느티나무, 1994, 78~80면 참고. 목포의 수출품목에서 쌀과 면화가 전체 수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924년과 1925년 92.4%, 1928년 94.3%로 목포항의 대외 수출품은 이 두 품목이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백년회, 『목포개항백년사』, (株)木浦新聞社, 1997, 188면)

11) 崔在洙·李源哲, 「開港期 이후의 木浦港과 木浦港의 비전」, 『韓國海運學會誌』 제25호, 한국해운학회, 1997, 58~59면 참고

12) 崔在洙·李源哲, 앞의 글, 65~66면

13) 최성환, 「開港 初期 木浦港의 日本人과 海上네트워크」, 『한국학연구』 제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76면

14) 목포시, 앞의 책, 78면 참고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르게 발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며 “농산물의 생산지와 좋은 항구의 결합은 신개항장 목포를 다른 개항장과 차별화해 갔다”¹⁵⁾고 했다. 하지만 이 차별화의 본질은 목포가 입지적 조건, 농수산물 집결지, 수운이 발달했다는 등의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해간 것이 아닌, 일본이 필요로 하는 쌀과 면화를 일본으로 실어가고 그들의 생산품을 국내로 가져와 판매하는 전형적인 피식민지 수탈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정부가 처음으로 선언방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관세징수를 목적으로 개항한 목포에 있어서도 조선은 자주권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에 있어서도 조약방식으로 개항한 仁川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하였다”¹⁶⁾는 것을 볼 때, 비록 목포 개항장에 무안감리서를 설치하여 자주권을 행사하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출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포는 조선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본의 수탈을 위해 개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중계무역항의 역할 외에 별다른 산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업자본과 근대문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소비도시로 발전했으며 타락적인 유흥문화와 향락산업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I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목포 개항장에는 실질적인 일본인전관거류지가 조성되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일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잡거(雜居)로 인한 상호 접촉기회가 많았던 것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 또한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자개항이었던 목포는 오히려 일본색 짙은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성행했고 일본 패망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겠다.

Ⅲ. 대중매체와 문화의 목포 유입 경로

근대시기 대중가요는 주로 음반과 라디오방송, 그리고 공연을 통해 대중에 향유

15) 양홍숙, 앞의 글, 26~27면

16) 裴鐘茂, 앞의 책, 56~57면

되었는데, 초기에는 유성기와 음반이 탄생하면서 대량 보급이 가능해졌다. “1899년에 음악을 들려주는 유성기가 수입됐다. 유성기는 기계가 운행하는 대로 노래, 피리, 생, 비파소리를 들려주어 마치 연극장과 같다는 평을 받았다. 유성기를 판매하는 상인은 사람들에게 와서 구경하라고 적극 선전했다.”¹⁷⁾ 당시 유성기는 고가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성세대였다. 그들은 유성기를 통해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전시가를 들었다. 음반은 1929년 전기녹음방식이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일본 음반 생산 기업의 적극적 공세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일상의 대중적 오락매체로 보편화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새로운 양식의 대중가요가 유행하게 되었다.

1920년대 말 일본은 음반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대중가요는 주로 음반을 통해 전파되었다. 일본은 음반과 유성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 “우리나라의 음반들은 모두 일본의 축음기 회사의 생산품이었다. 1927, 1928년 경 일본은 서양 음반 수입상들이 원반을 수입해서 다시 찍어 판매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미국 콜롬비아, 빅타 등의 자회사로 탈바꿈하고 조선 음반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대중가요 음반의 생산 판매는 곧 일본 음반자본의 이윤창출 행위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대중가요 음반의 생산, 판매는 음반 판매뿐 아니라 축음기를 팔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¹⁸⁾ 1927년에는 경성방송국(JODK)이 개국하면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라디오 방송은 방송시간도 제한적이었던 데다가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조선인 비율이 10%를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조선어보다 일본어 방송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청취율이 저조했다. 하지만 점차 방송 상황이 개선되었고 방송과 레코드가 맞물려 1930년대에는 대중가요가 더욱 활발하게 보급되었다. “실제로 1936년 무렵 조선에서 1년 동안 판매된 음반은 100만 장이었고, 이 가운데 한글 음반만 30만 장이었다니, 다른 문화상품보다도 음반의 보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 시기 음반에 담겨진 대중가요에는 크게 트로트, 신민요, 만요, 재즈송의 네

17) 현광호, 앞의 글, 259면.

18)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63면.

19) 이준식,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식민지' 조선의 삶과 근대』, 역사와비평사, 2014, 250면.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종류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애초에 대중의 사랑을 받던 판소리나 잡가 등의 전통 가요를 제치고 1930년대 이후 가장 인기를 끈 것은 트로트였다.”²⁰⁾ 트로트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 그 양식이 완성되는 첫 전성시대를 맞이했는데, 당시 트로트는 도시의 신문화이자 고급한 중심장르로서, 오늘날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트로트는 개화한 지식층이 먼저 받아들이고, 도시에서 신문화를 맞볼 수 있었던 사람들, 즉 돈 있는 소시민층과 이들 주변에 있던 기생들이 향유하던 예술이었다.”²¹⁾ 재밌는 것은 이처럼 남성가수나 작사가, 작곡자들은 엘리트였고 유희하였던 것에 반해 여성가수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이나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신문화로서 트로트의 위상과 신문화를 접촉할 수 있었던 계층을 통해 근대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트로트가 대중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던 유행기와 음반 등의 매체와 문화는 어떤 경로를 통해 목포로 유입되었을까? 그것은 일반적인 물류와 인적 이동과 그 궤적을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만은 “전라도 연안이 개항장으로서 부각된 것은 남도의 자원조건과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볼 때 영산강유역, 서남해 도서와 연안의 자원이 당시 일인의 주요 처소였던 부산으로 가고, 부산의 인력과 물자가 전라도에 이르던 정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전라도 연안에 개항장을 두는 것이 일인의 입장에서 발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²²⁾라고 하여 개항 이전부터 목포를 비롯한 전라도지역은 부산과 물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최성환 또한 개항 초기 목포 일본인들은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한 인물이 많았고, 목포 개항 이전부터 이미 목포권 다도해의 해산물을 매입하고 영산포 등의 쌀을 매입하는 등 전라남도는 부산상인의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부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목포에 정착했기 때문에 개항 초기 목포의 상업은 부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²³⁾

개항기 목포와 일본 간의 기선항로를 보면 오사카상선회사와 일본우선주식회사,

20) 이준식, 앞의 책, 248-249면.

21) 이영미,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2002, 28면.

22) 조정만, 「개항 이후 목포의 공간 변화와 문화 과정」, 『인천학연구』 제10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7면.

23) 최성환, 앞의 글, 2012, 61면 참고.

아마가사키(尼崎)기선, 그리고 사가현(佐賀縣)명령항로가 있었다. 오사카상선회사는 1900년 10월에 오사카-인천선을 운항하며 고베-시모노세키-부산-목포-군산을 기항했다. 나가사키-다렌선은 부산-목포-군산-인천-진남포를 기항했고, 안동선(安東縣)-마산-이즈하라-고노우라를 기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우선주식회사는 1898년 목포에 대리점을 두고 고베-톈진(天津)과 고베-뉴장(牛莊) 항로를 운항하면서 목포에 기항했으며, 고베-인천 간, 고베-진남포 간 자유 항로 기선을 목포에 기항시켰다. 아마가사키기선은 1906년 처음으로 목포에 취급점을 설치하고 오사카-인천 간의 정기선을 운항하며 고베-시모노세키-부산-목포-군산을 기항했다. 그리고 사가현 명령항로는 가라스(唐津)-인천 간에 명령항로를 열고 부산-목포를 기항지로 하였다.²⁴⁾ 이렇게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부산-목포-인천을 오갔고 상황에 따라 중국까지 연장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선항로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갔음을 말해주는데, 목포가 개항한 후 1910년까지의 주요 무역 상대는 일본, 부산, 인천 등으로, 일본으로서는 수출이 많았고, 부산으로부터는 수입이 많았다. 주지하다시피 목포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주요 수출품은 쌀이었는데, 목포에서 직접 일본으로 실어가거나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실어갔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은 일본과 중국이었지만 1928년 일본에의 수출액은 99.4%, 중국에의 수출액은 0.6%였고 수입액은 각각 79.1%와 8.6%를 차지하여²⁵⁾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목포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수탈이 갈수록 심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영향력 또한 더욱 강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북아해역을 두고 보았을 때 ‘중국-인천-목포-부산-일본’으로 이어지는 목포의 지리적 위상과 주로 농수산물의 공급지라는 산업적 특징, 그로 인한 개항, 기선의 항로와 그것을 통한 인적, 물적 유통 상황 등을 보았을 때 트로트가요가 수용될 수 있는 물적, 문화적 토대는 역시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목포로 유입, 전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金貞燮 옮김, 『木浦誌』, 郷土文化社, 1991, 234~235면 정리

25) 목포백년회, 앞의 책, 187면 참고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IV. 목포의 트로트 흥성원인

1920년대 말 라디오방송국이 개국했고 유성기 문화도 일부 부유한 계층이 즐기는 고급문화의 틀을 벗어나 빠르게 대중에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트로트는 1930년대에는 대중이 즐기는 일상의 오락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크게 인기를 얻었고, 오늘날까지 노래 불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생명력이 긴 대중가요 장르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트로트가 기본적으로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고 보고 목포에서 트로트 가요가 흥성하게 된 원인을 크게 1) 실질적 일본인전관거류지 형성과 조선인·일본인 잡거 2) 인구 증가와 높은 일본인 비율 3) 유흥문화의 발달과 유성기 보급 4) 가수 이난영(李蘭影)의 인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질적 일본인전관거류지 형성과 조선인·일본인 잡거

일본에 의해 개항을 맞이하게 된 조선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특히 부산과 목포와 같이 일본과 관계가 깊었던 개항장은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개항장은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유통되는 통로로서 일반 해안 도시나 내륙 도시들보다 먼저 외래세력과 접촉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의 필요에 의해 개항했던 목포는 그것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항과 함께 목포에는 일본을 비롯한 러시아, 미국, 프랑스, 청, 영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덴마크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조계지가 설치되었다.”²⁶⁾ 하지만 당시 목포의 각국공동거류지는 “몇 사람의 중국인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으로써 정치, 무역, 산업 등이 하나같이 일본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가지의 외견을 살펴보아도 바로 조선 내의 다른 도시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고 했다.

26) 김주관, 「개항장 공간의 조직과 근대성의 표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1호, 역사문화학회, 2006, 139면.

27) 木浦文化院, 앞의 책, 679면.

이렇게 하여 개항 당시 부산, 원산, 인천과 같이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원했던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각국공동거류지를 관철했던 조선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목포로 오지 않아 각국공동거류지는 결과적으로 일본인전관거류지가 되어버렸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제는 개항 후 정식으로 영사관을 개설한 나라가 일본뿐이었으며 영국은 목포 해관장으로 재직하던 영국인 아마에게 영사사무를 위임하였을 뿐이었다는 점이다. 광대한 부지를 확보해 둔 영국과 러시아가 영사관을 개설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다. 실제 내항하여 정착한 외국인들도 일본인들뿐이었다. 그렇게 되니 거류지내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각국 거류지회(신동공사)의 구성도 일본영사와 일본인 거류민 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일본인이 아닌 사람은 조선 정부의 대표인 무안감리 한 사람뿐이었다. 따라서 조계 내의 행정 및 경찰의 실권이 모두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독점될 수밖에 없었다...(중략 인용자)... 목포 각국 조계 신동공사라는 것은 이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일본인 전관 거류지화되고 말았다.²⁸⁾

이처럼 각국공동거류지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목포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외에 영국과 러시아도 영사관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일본만 영사관을 운영했던 것이다.

목포의 각국공동거류지에서 일본인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 것 이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잡거현상이다. 조계장정에 따르면 조선인은 거류지내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류지 바깥으로 이주해야 했지만 이주하지 않은 채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다른 개항장들과 다른 점이었는데, 부산은 일본인전관거류지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리 잡은 곳이 “조선시대 이래 왜관 부지여서 어느 정도 시가지 구획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고, 영선산, 북병산, 보수천 등으로 자연적인 경계가 형성되었고, 조선인 마을과도 분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부산의 경우 11만 평이라는 큰 부지 위에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개항 초기부터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잡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는 서울 외곽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각국공동조계의 규모가 크

28) 崔在洙·李源哲, 앞의 글, 56면 재인용.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고, 중국 화상의 활동이 왕성하여 조계 안팎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독점적이지 못하였다.”²⁹⁾

이에 반해 목포는 개항장을 조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도 “목포의 거류지는 논, 갯벌, 언덕 등으로 한 개 지구도 매축이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비용 또한 공정원가의 10배에서 20배가 필요했으니 과연 이 사업이 일본 거류민의 손으로 잘 될 것인지는 외무당국자의 가장 걱정하는 바였다”³⁰⁾라고 할 정도였다. 따라서 일본 측은 조선인과의 협조를 통해 거류지를 조성해야 했다. 게다가 거류지 조성으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 조선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고용살이를 하게 되면서 조선인이 거류지 내에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항 후 기에는 조선인마을에 일본인들의 생활물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생겨나고 거류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의 거주공간과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등의 원인으로 조선인마을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증가하게 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잡거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다.³¹⁾

원래 거류지는 조선인과 외국인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목포의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의 부족, 생활에서의 필요, 경제적 관계와 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거류지내에서, 혹은 바깥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생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두 사회가 만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로 보아 일본이 목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2. 인구 증가와 높은 일본인 비율

목포는 개항과 함께 근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아래

29) 양홍숙, 위의 글, 55면.

30) 金貞燮 옮김, 앞의 책, 50면.

31) 양홍숙, 앞의 글, 56~57면 참고.

의 <표1>에 의하면 1897년 개항할 때 2,806명이었던 목포의 인구는 1912년에는 13,128명으로, 거의 5배에 육박한다. 이는 1987년부터 5년 단위로 보았을 때 1902년에는 29%, 1907년에는 30%, 1912년에는 29%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목포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주된 원인은 거류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과 매축공사가 진행되고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었으며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건설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관련 인력들이 이주해오고 새로운 경제활동이나 생활터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인구가 급증한 것만이 아니라 인구구성에서 일본인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목포를 수탈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일본인들의 목포 이주를 적극 권장했고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도 기회를 찾아 신흥 개항장 목포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표1> 개항기 목포의 국적별 인구수

구분	조선인	일본인	청국인	구미인	합계
1897	2,600	206	-	-	2,806
1902	3,655	1,045	45	10	4,755
1907	5,205	2,851	77	6	8,139
1912	7,645	5,323	150	10	13,128

[출처] 최재수·이원철, 「개항기 이후 목포항의 역할과 발전」, 『해양한국』 10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77, 86면; 金貞燮 옮김, 앞의 책, 226면 <표21>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다시 <표1>의 목포 총 인구 중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897년 목포에 거주한 외국인인 일본인만 206명으로 목포의 총 인구 2,806명 중 약 7.35%의 비율을 보였으나 1902년에는 일본인 비율이 22%에 육박한다. 1907년에는 35%, 1912년에는 40%를 차지하여 그 증가속도가 대단히 빠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일본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목포의 총 인구 중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대조해보아도 조선인은 각각 71%, 70%, 68%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인은 19.7%, 36.6%, 53.5%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간의 인구비율을 보면 1902년에는 일본인이 95%를 차지하였다. 1907년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과 1912년에는 모두 97%의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개항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 이외에 목포로 와서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약간 생겨나기는 했지만 전체 외국인 비율에서는 오히려 일본인의 비율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포에 거주한 일본인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산업에 있어서 목포와 일본의 관계가 밀접했고 그에 따라 일본정부가 일본인의 목포 이주를 적극 권장했으며, 실질적인 일본인전관거류지가 조성되었던 것과 관계가 깊다. 일본인 거주자의 높은 비율은 목포에서 일본 문화가 자리 잡고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 유흥문화의 발달과 유성기 보급

목포는 일본을 통해 신파극, 영화, 트로트와 같은 신문화와 유성기가 유입, 소비되면서 유흥도시로 발달했는데, 이는 그것이 보급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목포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최전성기를 누렸다고 하는 1930년대 목포는 유흥적인 분위기가 넘쳤다고 하며 그 근거로 음식점과 유곽 이용, 유흥비 지출이 과도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목포백년회는 1935년 9월 22일자 “남국(南國)의 항구도시, 목포의 쌍곡선”이라는 제하의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목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유흥기분이 넘쳐흐르고 상업도시 목포의 발전을 반영하는 통계수치를 보면 늘어가는 것은 음식점과 음주청년과 ‘거리의 신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리점, 유곽, 카페, 음식점, 여관, 예기(藝妓), 창기(娼妓), 여급(女給)으로 구분한 각종 유흥시설 현황과 조선인과 일본인의 유곽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목포의 상업적 발전은 유흥의 발전으로 평가될 만큼 유흥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컸는데 그 이유는 목포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도시의 성격이 유흥과 소비로 이어지기 마땅한 조건임을 전제하고, 유흥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당시 목포의 경기가 초호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²⁾

32) 목포백년회, 앞의 책, 245~247면 참고.

목포의 이런 경제적 호황은 유성기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유성기는 도입 초기에는 고가품으로, 경제적 특권층만이 그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 유성기의 향유층은 재력 있는 기성세대였고, 그들은 유성기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던 창가와 민요와 같은 구가를 즐겼다.

하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유성기 음반은 부유한 상층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에서 벗어나 일상의 오락거리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조선의 레코드 산업도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전 조선에는 3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유성기 가게가 성업 중이었고 콜롬비아 등 6대 음반사에서 1933년에만 537종의 음반이 발매되었으며 1934년에는 600~700만 매에 달하는 유성기 음반이 팔려 나갔다. 그 시장 규모는 600~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유성기 음반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1940년 전시체제에 접어들기 전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³⁾ 그에 따라 향유층도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교체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음악을 즐겼다.

음반과 유성기 문화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보급되었던 1930년대는 목포가 일본과 국내로 이어지는 상업의 핵심지역으로 활발하게 기능했던 시기였다. 1930년대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목포의 경제적 번영과 그에 따른 유흥적 분위기는 유성기와 음반 같은 대중매체가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게 했고 대중이 새로운 가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토대가 되었다.

4. 가수 이난영의 인기

류용철은 “트로트의 유행과 목포 문화는 궤를 함께 한다. 김우진의 애인인 윤심덕의 ‘사의 찬미’에 이어 많은 트로트가 목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³⁴⁾고 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과 <목포는 항구다>이다. 대중가요는 1930년대 유성기와 음반의 보급으로 황금기를 맞이했고, 그

33) 고은지, 「20세기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대중가요의 장르 분화 양상과 문화적 의미」, 『韓國詩歌研究』 第21輯, 한국시가학회, 2006, 331면.

34) 류용철, 『목포 옛 길을 찾아서』, 젊은느티나무, 2009, 135면.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런 가운데에서 이 노래들이 탄생하여 새로운 유행음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농촌에서는 판소리와 민요가 불렀고, 도시에서는 기존의 민요가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변모한 신민요가 새로운 음악으로 부상했지만 1935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시작으로 1938년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적어도 도시에서는 트로트가 민요와 판소리를 밀어내고 새로운 유행음악이 되었다. 트로트는 도시 멋쟁이들이 향유하는 음악이 되었던 것이다.³⁵⁾ 1930년대 최고의 경제적 호황과 번영을 누렸던 신흥도시 목포는 그것을 즐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이난영은 목포 출신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16세 무렵 순회극단을 따라 다니다가 발탁되어 OK레코드사의 전속가수로 활동한 인물이다.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가수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은 1935년 9월에 발매되었는데, 빼앗긴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 나라 잃은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하여 크게 인기를 얻었고, 이난영은 ‘가요의 여왕’ 칭호를 받았다. 1935년 10월에 『삼천리』 잡지의 인기가수 투표 결과 여자가수 3위를 차지했고, “‘목포의 눈물’은 우리 가요로서는 최초로 일본어로도 취입되어 일본에서까지 히트하였다. 이어서 ‘목포는 항구다’까지 히트하자, 가수 이난영과 우리 고장 목포의 정서와 빼어난 경관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급속히 메아리치게 되었고, 따라서 각 지방마다 목포 구경 가자는 이야기가 유행일 정도였다고 한다.”³⁶⁾

<목포의 눈물>의 연장선상에 <목포는 항구다>가 있는데, 이 곡은 당시 최고의 작사가였던 조명암이 이철 OK레코드사 사장으로부터 “목포노래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목포를 둘러보고 가사를 썼다. 이는 앞선 <목포의 눈물>이 전국적 인기를 얻음으로써 목포의 인지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그것이 지속적인 상업적 이용 가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³⁷⁾ 특히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쟁에 혈안이 되면서 엔카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하여 금지시키고, 대신 애국과 승전을 노래하는 국민

35) 김형찬, 『서태지 안에도 이미자는 있다-우리 대중음악 읽기-트로트의 기억』, 『월간 샘터』, 샘터사, 2006, 122면

36) 목포백년회, 앞의 책, 243면

37) 관수경, 『개항 이후 서남바닷길의 성쇠와 대중매체 속 목포의 이미지』, 『지방사와 지방문화』 19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6, 302면

가요를 보급시켰다. 1941년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수들에게 전쟁을 정당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선동하는 노래를 대거 부르게 했다. 이런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1942년 이난영의 <목포는 항구다>가 널리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그만큼 이난영의 인기가 높았으며 목포사회는 물론이고 전 조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V. 나가는 말

이상으로 목포를 대상으로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한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은 조선의 네 번째 개항장이자 첫 번째 자개항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일본인이 썼던 『목포부사』나 『목포지』를 근거로 했던 기존 관점을 벗어나 목포 개항은 조선이 의도했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이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목포의 개항과 개항장 목포의 특징을 살핌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 보고자 하였다. 조선 정부는 개항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관세수입을 통해 조선이 직면한 심각한 재정난을 타결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한일수호조규 이후의 개항장은 모두 칙령의 형식으로 개항을 했다. 그리하여 목포 개항장의 경우에는 무안감리서를 설치하여 외교통상사무와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자주성을 보이는 듯 했지만 10년도 되지 못해 폐지되었으며 목포는 줄곧 일본의 수탈항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 따라서 목포 개항 당시에도 조선은 여전히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에는 이론의 여지를 두기가 힘들었다.

목포는 부산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여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고 다도해와 나주평야의 풍부한 물산의 집산지로, 쌀이 부족했던 일본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일찍부터 일본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다른 서구열강들은 목포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조선정부에서 관철시켰던 각국공동거류지는 결국 일본 인천관거류지로 기능했다. 또한 개항 이전부터 넓은 부지의 왜관이 존재했던 부산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이나 중국과 서구국가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인천과 달리 목포는 거류지 조성 과정이나 산업 등의 필요에 의해 조선인이 거류지 내에서 생활하거나 개항 후기 조선인 마을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개항은 목포의 인구 급증을 가져왔고, 그런 가운데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이주장려정책 등에 힘입어 많은 일본인들이 목포로 이주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일본인 비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목포가 일본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로 만들었다. 특히 산업구조상 목포는 일본의 수탈항으로 기능하면서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했고 유흥과 소비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속에서 일본 가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트로트가 1930년대에 크게 인기를 얻었다. 도시의 신문화이자 대중문화의 고급한 중심장르였던 트로트는 음반의 대중적 보급과 함께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첫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목포는 개항하기 이전부터 부산의 상권 하에 있으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데, 개항장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은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게 했다. 또한 일본-부산-목포-인천을 기본으로 하는 기선항로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유성기와 음반 등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따라 부산을 통해 목포로 유입, 유통되었고 트로트가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포의 트로트 흥성 원인을 실질적인 일본인전관거류지의 형성과 조선인·일본인의 잡거, 인구 증가와 높은 일본인 비중, 유흥문화의 발달과 유성기 보급,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의 인기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개항 목포는 스스로 개항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해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고은지, 「20세기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대중가요의 장르 분화 양상과 문화적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4호 (2019. 11. 30)

- 『韓國詩歌研究』第21輯, 한국시가학회, 2006
- 곽수경, 「개항 이후 서남바닷길의 성쇠와 대중매체 속 목포의 이미지」, 『지방사와 지방문화』19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6
- 김주관, 「개항장 공간의 조직과 근대성의 표상」, 『지방사와 지방문화』제9권 제1호, 역사문화학회, 2006
- 양홍숙, 「‘신개항장新開港場’ 목포의 공간과 조선인 네트워크」(조정민 엮음, 『동아시아 개항장도시의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3
- 조정만, 「개항 이후 목포의 공간 변화와 문화 과정」, 『인천학연구』제10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 최성환, 「開港 初期 木浦港의 日本人과 海上네트워크」, 『한국학연구』 제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최성환,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崔在洙·李源哲, 「開港期 이후의 木浦港과 木浦港의 비전」, 『韓國海運學會誌』제25호, 한국해운학회, 1997
- 최재수·이원철, 「개항기 이후 목포항의 역할과 발전」, 『해양한국』10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77,

단행본

- 金貞燮 옮김, 『木浦誌』, 郷土文化社, 1991
- 류용철, 『목포 옛 길을 찾아서』, 젊은느티나무, 2009
- 목포문화원, 『목포시사(인문편)』, 목포시, 1987
- 木浦文化院, 『完譯木浦府史』, 목포문화원, 2011
- 목포백년회, 『목포개항백년사』, (株)木浦新聞社, 1997,
- 裴鐘茂, 『木浦開港史 研究』, 느티나무, 1994
- 손민정, 『트로트의 정치학』, 음악세계, 2009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이영미,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2002

이준식,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식민지’ 조선의 삶과 근대』역사와비평사, 2014

鄭昭然, 『개항장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조경달·최덕수, 『근대조선과 일본』, 열린책들, 2015

현광호, 『세계화시대의 한국근대사』, 선인, 2010

기타자료

김형찬, 「서태지 안에도 이미자는 있다-우리 대중음악 읽기·트로트의 기억」, 『월간 샘터』, 샘터사, 2006

<Abstract>

Influx and Development of Popular Culture at the Open Port : Focusing on Trot Inflow of Mokpo and Its prosperity

Kwak Sukyoung

Mokpo is a port city located in the southwest of Korea, facing the seaside town of southern China along the West Sea, and connecting Incheon and Busan with Japan. Also, since it was a place where the rich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f Dadohae and Naju plain were gathered, it received the attention of Japan from the beginning, and it opened for the fourth time in Joseon in 1897 after Busan, Wonsan, and Incheon. This is also the first Jagachang (Jagachang means a port that was opened in the judgment that it would benefit Korea) opened by King Gojong's decree. With the opening of the port, Mokpo developed into a modern city with the influx of people and the economy. In the process, new popular culture also came in and developed. Based on these facts, this manuscrip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okpo's open ports and analyzed the influx and development factors of trot, a representative modern pop song.

Joseon did not accept the demands of Japan and established a common residence in Mokpo but did not receive the attention of other countries. As a result, only Japanese restrictive concession existed, and Korean and Japanese lived together. The population increased greatly as the Korean and Japanese who lived in Busan or Incheon, which opened port before Mokpo, moved to Mokpo. Besides, Mokpo mainly served as a port for carrying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rom the surrounding area to Japan, but the economy developed deformed despite lacking a special industrial base. Economic prosperity enabled the popularization of mass media such as gramophones, and especially in the 1930s and 1940s, Lee Nan-young's <Tears of Mokpo> and <Mokpo the Harbor> became very popular nationwide. In all respect, the trot, which had a great influence from Japan, was first spread to Mokpo through Busan.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and dependency of Japan are stronger in the

개항장의 대중문화 유입과 전개-목포의 트로트 유입과 흥성원인을 중심으로

overall aspect of society than the characteristics of Jagaehang,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ports opened by Mokpo as a treaty.

Keywords: Open Port, Mokpo, Popular Culture, Popular Song, Trot

논문접수일 : 2019년 10월 05일
심사(수정)일 : 2019년 11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21일

K C I

КСІ